

제주항 항만 보안관리체계 및 관리실태 점검

-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, 제주항 경비보안 현장 점검 -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5일(월)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종합상황실을 찾아 제주항만의 보안관리 체계와 실태를 점검했다.

강 장관은 제주항의 항만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, 제주항만 부두로 자리를 옮겨 항만 경비보안 CCTV, 차량형 X-ray 검색기 등 보안 시설과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였다. 또한, 해양경찰과 제주항만 보안 경비 인력 근무 상황을 점검하며 노고를 격려하였다.

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“크루즈(Cruise) 관광객 증가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‘무사증 제도’를 이용한 외국인의 무단이탈 시도로 항만의 보안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.”라며, “철저한 경비 보안 태세를 유지하고 해양경찰,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경비·검색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.”라고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	책임자	과 장	윤두한 (044-200-5790)
		담당자	사무관	조민수 (044-200-5778)